

사립 교원 위탁 채용 다시 '시험대'

사립학교 비중이 높은 광주지역에서 중등 사립교원 위탁 채용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를 제외한 광주지역 157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사립은 67개교로 사립점유율이 42.6%에 이른다. 특히, 고등학교는 62.7%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사학 비율에 비해 교원 위탁채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사학법인협의회와의 공동전형을 통해 2018학년도 6개 법인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 19명의 사립 신규교사를 선발했다. 사학 비율은 전국 1위지만 여전히 한 해 20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사립 기간제 비율이 2017년 20.2%, 2018년 23.5%, 2019년 26.9%로 해마다 증가해 담임과 부장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배정하는 등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탁 채용의 필요성은

광주시교육청, 사립 67개교...점유율 42.6%

사학 비율 比 교원 위탁채용 비율 상대적 낮아

8월말까지 법인별 수요조사 마친 뒤 10월 공고

더욱 높다는 지적이다. 학교관리자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도 위탁 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과 교육청의 입장차가 여전히 현저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사 투명성을 높여 채용 비리를 차단하고 실력과 교사를 채용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위탁 채용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지울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적잖아서다.

올해 공동전형을 앞두고 사학협의회 측에서는 공립과 사립 인용시험을 같은 날 실시할 것과 1차 시험을 주관식 위주에서 80% 객관식

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청과의 입장차로 결국 협상은 결렬됐고 전형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사학들이 공동전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시교육청은 8월 말까지 학교법인별 선발인원 수요조사를 마친 뒤 오는 10월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14일 교육청 주관으로 중·고교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과목별 자체 출제제 제1차 시험을 실시하고, 1차 합격자(선발인원의

5~6배수)를 해당 법인에 추천하고 2020년 1월 2차 수업 실연과 3차 심층면접을 학교법인이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 3차 전형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5명 중 1명 이상은 교육청에 각각 추천하게 된다.

특히,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비율이 높음에도 공동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현석용 정책기획과장은 "사학법인과 공동전형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년과 같이 희망 법인 중심으로 공동전형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공동전형이 사립교원 채용의 '광주형 모델'로 정착,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보성교육지원청, 상반기 퇴직

일반직공무원 축하 자리 가져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6월 18일 기획회의실에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다 2019년 하반기 공로연수 후 2019. 12. 31.자 정년퇴직 예정인 일반직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부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재임기간 동안 헌신을 다해 수고한 일반직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남근 교육장은 "그 동안 전남교육, 특히 보성교육을 위해 평생을 묵묵히 봉직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퇴직하신 후에도 보성교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 봐 주시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소중한 혁신보성교육'을 현명하고 합리적인 지혜로움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퇴직 일반직 공무원(노동초 주무관 임병준 외 1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시설물 관리를 위해 뛰었던 지난날 삶에 대한 소회와 공로연수 및 퇴직 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보성=인구일 기자



전남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나선다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의식 고착 첫걸음

전남도교육청(장석웅 교육감)이 18일 청사 5층 상황실에서 과반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남지부와 함께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실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교육 노·사는 이날 회의를 통해 학교 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2017. 08. 07. 이

후)된 이후 취약해진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착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노사 대표위원장인 송용석 교육국장과 이금순 전남학교비정규직 노조 지부장 등 16명의 위원들은 실무자 협의를 거쳐 상정된 총 4개의 안건을 협의했다.

또한 급식실에 많이 노출돼 있는 위험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일선 현장에 적용되면 급식실 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영양과 조리 책임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사가 무재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안전보건방안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순천대 '화창 창업

경진대회' 시상식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창업지원단은 최근 대학본부 소회의실에서 2019년 화창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화창(花창) 창업경진대회'는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월 24일 열린 5회 대회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예비 창업자 등 30개 팀 96명이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다.

대상인 총장상에는 지역 과실을 이용한 '홈부리 KIT'를 창업아이템으로 개발한 '드림루트(팀장 오지형, 불류하과)팀이 선정됐다.

순천시장은 최우수상은 '오렌지 버스(팀장 김기영, 조리과)와 Aions(팀장 고재연, 교보자공학과), 장려상은 심복 IT(팀장 최환준), 현장부대표 결정된 인기상은 'Come in tum in(팀장 최찬미)'이 수상했다.

서면과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 팀에는 대상 150만 원을 비롯해 총 450만 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제공됐다.

창업지원단은 수상한 팀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적 보호와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아이들 SW교육 우리가 책임집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6월 15일과 22일, 29일 광주교육대학교 매체관에서 도내 유·특·초·중·고 희망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실기 연

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2018년 중등, 2019년 초등에 도입된 SW교육 필수화에 따른 초·중·고의 내실 있는 SW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김정환 기자

질문·토론이 있는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6월 18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함평 영화학교 김시원 특수교사를 초빙하여 '질문과 토론이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이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진로·직업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었다.

본 연수에 참여한 이 도 교사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초등학 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 중심의 교육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더 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재철 교육장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핵심역량을 향상 시켜주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기회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가성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